

45개국 277명 지원...새마을대학원 경쟁률 9대 1 육박



졸업생 모국서 맹활약에 자국
“나도 국제개발 전문가 되고파”
고위급도 지원 ‘최고 경쟁률’

‘새마을학’과 대한민국의 새마을을 개발 노후를 배워 국제 개발의 전문가가 되려는 외국인들이 영남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영남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원장 박승우, 이하 ‘새마을대학원’)의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1명 모집에 45개국 277명이 지원해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2학년도 3월 첫 외국인 신입생 모집 이래 최고의 경쟁률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미 에파도르 교육과학기술부 마리아 베르메오(Maria Bermeo·여) 전 차관보가 눈길을 끈다. 베르메오 전 차관보는 올해 30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 교수를 지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좌관을 거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에파도르의 차세대 핵심 리더로 평가되고 있다.

베르메오 전 차관보는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에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제 개발과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워 에파도르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이 밖에도 동티모르·요르단·팔레스타인(이상 아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시에라리온·이집트(이상 아프리카), 바누아투(오세아니아), 아제르바이잔(유럽), 멕시코·코스타리카·페루(이상 라틴아메리카) 등 11개 국가에서 첫 지원자가 나오는 등 새마을을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졸업 후 새마을을 개발 전문가로서 자국의 정부 및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을 개발 노후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건물 앞에 선 학생들. (영남대 제공)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최근 르완다 가시보(Gatsibo) 시장에 당선된 가사나 리차드(Gasana Richard·40)

를 비롯해 개도국 각계각층에서 두드러

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서울에서 24개국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임시 설명회를 개최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최외출 국제개발협력원장(부총

장)은 “첫해 15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한 새마을대학원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감개무량하다”면서 “영남대가 축적한 새마을 개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겼다. 박종문기자 kjoim@yeongnam.com

▶1면 ‘실리외교 첫발’ 서 계속

이 때문에 당장 10월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북핵 문제를 중국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풀어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중의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원리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하기보다 실리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잘못된 행태는 계속 지적해 나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지 않고선 북한·북핵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 협력이 남북간 대화를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도 알려야 한다. 중국이 우리 편이 돼 북한을 압박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가까워진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는 삼가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1면 ‘책 읽어주는 남자’ 서 계속